

국제도시 꿈꾸는 광주... 손님맞이는 후진도시

KTX 개통·U대회·문화전당 개관 등 대형 이벤트 코앞

일부 유명 음식점·호텔 서비스 수준은 여전히 낙제점

“김치축제 때 전국에서 온 귀빈을 대접하기 위해 찾은 모 유명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는 다 식은데다 나이프(칼)가 안 들어갈 정도로 질기더군요. 손님들도 어이가 없는지 서로 얼굴을 보고 웃는 데 귀구멍 아래도 숨고 싶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VIP 손님들이 객실에 과일과 탁자를 부탁했는데, 직원이 호텔 격이 떨어진다며 안 된다고 해 난처했습니다.”

국제도시를 자칭하는 광주시의 국내·외 ‘손님맞이’ 음식 서비스가 ‘후진 도시’ 수준에 머무르면서 예향 광주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3월 호남선 KTX 개통, 7월 광주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9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등 굵직한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지만, 광주의 일부 호텔과 유명 음식점의 서비스 수준은 낙제점이라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차다찬 스테이크 등 무성의한 음식과 불친절한 사례는 기본이고, 간단한 편의 제공조차 거부하는 등 장삿속만 행하는 영업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일명 과도한 ‘가격 깎기’ 행태는 이 같은 부실한 서비스를 부채질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타 지역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부실한 서비스 등 부작용을 막고, 지역 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과도

한 음식·숙박비 깎기 등을 제한하고 있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모두 21개의 국제행사가 열리는 올해 행사 관련 광주 방문객은 120여만명으로 예상되며, 이 중 외국인인 3만9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행사와 관련해 광주를 방문한 내·외국인 대부분은 해당 국가나 조직의 대표성을 지닌 귀빈급으로, 광주시는 VIP급 의전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행사 의전에 필수적인 오·만찬 때 제공되는 음식과 서비스가 수준 이하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광주에서 열린 모 국제행사에서는 중국·일본 대표단의 의전 과정에서 차가운 스테이크 등 수준낮은 음식 서비스와 요청한 현수막 등이 행사 시작 전까지 설치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주최측과 호텔 측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

호텔측 관계자는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

고 있지만, 공공기관 등에서 행사 참석자의 속식 가격을 사실상 일반 숙박업소 수준까지 깎다 보니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되레 하소연을 쏟아냈다.

“맛의 고정” 광주를 대표하는 유명 한정식 업소와 레스토랑 등의 낮은 서비스 수준도 입살에 오르고 있다. 외국인 손님의 특정음식 배제 요청을 묵살하는가 하면 종업원들이 시끄러운 카트를 밀고 다니며 큰 소리로 떠드는 일도 다반사라는 게 행사 주최 관계자들의 불만이다. 특히 음식 접시를 던지듯 놓고 가는 서비스 행태는 민망할 정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월 열린 김치축제 행사 때는 모 유명 레스토랑에서 초대 손님들을 대접했는데, 주문한 스테이크가 다 식은데다 딱딱한 상태로 나와 참석자들이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고려시대 조운선 800년만에 바다로

고려시대 개경으로 물품을 운송했던 조운선(漕運船) '마도 1호'가 800여년 만에 복원돼 26일 오후 목포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옆 해변광장에서 진수식을 마치고 힘찬 첫 항해에 나섰다.

/*목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순이익 10% 매년 광주·전남에 환원하겠다”

김한 광주은행장 취임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이 26일 민영화된 광주은행의 첫 은행장에 취임했다.

〈인터뷰 8면〉

김 신임 행장은 취임식에서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민이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지켜온 광주은행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계승·발전시켜 ‘최고의 중·서민 및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또 “광주·전남지역에 여신을 더욱 많이 공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겠다”며 “특히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광주은행 당기순이익의 10% 정도를 매년 광주·전남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이와 함께 “광주은행은 JB금융

업주주의 주력 계열사”라고 강조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통합 계획은 없으며 두 은행간 중복투자를 막고 시너지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거쳐 미국 예일대에서 경영대학원을 졸



업했다. 삼일회계법인, 미국 GM본사, 파마그룹(PAMA Group) 서울대표, 대신증권 국제본부장, 메리츠증권 부회장,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전북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JB금융지주회장으로 재직중이다. JB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삼양그룹 창업자 김연수씨의 손자이자 김상협 전 국무총리의 아들로 지난 2010년 전북은행장으로 부임한 이후 7조원이던 은행 자산을 4년 만에 40조원으로 불리는 등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해왔다.

/*홍해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알립니다

한국문단의 새 이름, 당신이 주인공

2015 광주일보 신춘문예
내달 15일까지 접수합니다

광주일보사가 한국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를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었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학경쟁이 살아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시 :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 마감 : 2014년 12월 15일(15일자 소인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문의 062-220-0624)

■ 기타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겉봉투에 붉은 글씨로 신춘문예 응모와 응모분야를 기입하고

원고 낱장에 필명·전화번호·주소·e메일주소를 함께 보내주시시오.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일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당선작은 2015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

새정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여야 누리과정 예산 갈등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 막판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당장,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다음달 1일) 처리가 불투명하게 되면서 연말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해 전 상임위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의사 일정 보이콧 배경으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여야는 전날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5233억원의 국고 반영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액수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굵직한 문제까지 막판 북병으로 등장해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조외기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경제 살리기 등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 지도부가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문의: 062)605-1114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12월 1일(월)~9일(화)
 문의: 062)605-1115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회 캄 봉사활동 ▶ 2면
 고미술 '고전 강' ▶ 22면



나의 취향에 맞춘 단 하나를 찾다.
The New A-Class

